

■광주시장 후보에 듣는다 평화민주당 조홍규

“광산업, 첨단·문화산업 육성 전력”

-광주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한 상황이다. 시민들도 과거의 긍지와 자존심을 잃었다. 민심을 한데 모으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구체적인 광주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기존의 광산업과 첨단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 무등산 인근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이다.
-광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무기력을 벗어나 자랑스러운 광주, 큰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겠다. 10년 후 광주가 세계의 명품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의 광주시장에 대한 평가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하면 후퇴했다. 광주시의 장단기 정책과 접근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배려도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광주시가 경제적 실속을 챙기기보다는 정치 논리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최근 담양군의회가 광주시 편입을 결정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은



조홍규는

광주시 광산구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7년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13· 14·15대 국회의원 지냈다. 야당 국회의원 시절, 재기

넘치는 입담과 함께 뛰어난 전략통으로 평가받았다. 왜소한 체구에도 몸싸움에서는 여당 의원들에게 밀리지 않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시절에는 북한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섰고,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인센티브 부여

서민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머리 맞댔 것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통폐합이 된다 해도 규모는 중국의 조그만 현에도 못 미친다. 광주 인근의 몇 개 군과의 통폐합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현실적으로나, 미래적 관점에서 봐도 적절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맞는 얘기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정치권은 무기력한 상황이다. 민생은 파폐해가면서 시민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동기 동창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광주시 발전 대책에 대해 속을 터놓고 담판 지을 수 있다.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광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도시다. 만약, 여당이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립 등으로 결국 광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정몽준 대표와 일부 여당 최고위원들이 후보로 나서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내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적도 없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나의 선거 슬로건은 '평민시대, 평민시장'이다. 나 자신이 서민이다. 서민의 눈물과 함께 하겠다. 또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지사 후보에 듣는다 평화민주당 김경재

“산업·관광 확충 ‘명품 전남’ 만들 것”



김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 유신시절 15년간 미국 망명생활도 함께했다. 망명 중 독립신문 등을 창간해 반 독재활동을 벌였다. 미국에서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귀국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했고, 김대중 총재 특별 보좌역을 5년간 맡아 활동했다. 이후 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당시 김 전 대통령 밑사로 최초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한보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로 깜짝 스타로 뜨기도 했다. 16대 대통령선거 때는 민주당 상임중앙위원과 최고위원도 역임했다.

여수박람회·F1대회 성공 개최 총력 지원

수익사업 다양화로 교육 진작·복지 실현

불초 김경재를 '김대중 평민당의 적자'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F1, 여수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가 성공개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괜히 남들이 하니까, 이를 따라 국제행사 하나 가져와 본 것에 불과하다면 큰일이다. 여수 엑스포 유치 당시 상하이와 경쟁했을 때 현지 모나코까지 국회 대 표로 달려갔던 사람이다. 거대한 규모의 상하이 '등록박람회'에 비교해 규모가 작은 여수의 '인정박람회'에 얼마나 많은 국내외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등 실속을 차릴 수 있을지가 참으로 걱정이다. 그러나 이왕 벌어진 것, 무난한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후보 공약 중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취임 즉시 '태스크 포스'를 만들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티베트, 우즈베크, 몽골 등지에 현지법인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과 농업, 과학, 교육, 산업 등의 공동사업을 벌이고 우리 총각들을 파견해 그곳에 현지 고용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여 파견이 끝날쯤 결혼해 귀향하도록 할 것이다.
-전남은 국고에 의지하는 사업이 많다. 정계를 한동안 떠나 있었는데, 국고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조금 쉬긴 했지만, 국회의원 8년 동안 산업자원위원, 예산결산위원 등을 거친 경험을 활용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경재 신상 메모

출생	여수
본관	경주 김씨
신체	177cm, 85kg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수학
주요경력	•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1987) • 제 15대, 16대 국회의원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선정 15대 국회(4년) 최우수 의원(1996~2000)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2003) • 평화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및 전남도 당대표
가족	아내, 1남 2녀
재산	약 5억원
종교	기독교
취미	바둑(1급)과 걷기 운동
자우명	정도동행(正道同行)·바른 길을 여럿이 같이 가야 한다
애창곡	최성수의 '사랑이여'
싫어 가족들과 하는 일	TV 보기, 같이 걷기, 외식하기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	"아이, 미안하네"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	"쉬어 가면서 공부해라"
좋아하는 연예인	송해교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좋아하는 여행지	고향 근처 평범한 곳
가장 가까운 소장품	美 망명중 김대중 선생이 준 만년필
별명	막동이
저서 혹은 논문	김형욱 회고록 '혁명과 우상' 전 5부 DJ의 독서일기 등 11권
존경하는 인물	김대중, 정준하, 김원룡
주랑/출연	소주 2~3잔
홈페이지	김경재닷컴(www.peacebike.or.kr)
이메일 주소	jkim531@hanmail.net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천도제

관음기도도량 불명사(주지 불명스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기를 맞아 5월 15일 오전10시부터 광주 국립 5.18묘역 '역사의 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특별 천도제>를 영산재로 봉행합니다.



지난 2000년 5월 제 1차례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영생을 위로하기 위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제20주기 특별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날은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영령들을 추모하고, 오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우리들의 국민 국가를 더욱 번영과 평화와 민주와 대평안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 천도제는 사(喪)관계 절충보존회(회장 대관스님) 소속 스님들이 영산재 의식으로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15일 (토) 오전 10시~13시

■ 주 관 : 서울 종로구 관음기도도량 불명사 (02) 732-0835

■ 후 원 : 광주불교방송 | 시대한국문화진흥회 | 남도매일 | 뉴스파이어 | 아메이뉴스 | 코리아뉴스 | 호남매일 | 호남신문 | 희망일보 | CNA21

■ 장 소 : 광주 불명불 5.18 묘역 '역사의 문'

----- 불명사